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홍정훈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KAIST미래전략대학원과 국회는 9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 9월 26일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세계 특허(IP)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에 이어 대한민국을 세계 특허허브 국가로 만들기 위한 관련 법안을 점검하고 추진위원회의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를 특허 · 지식재산 분야의 세계 중심국가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래 결성됐다.

이번 회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 및 KAIST 이광형 교수가 공동대표 등 여야 의원 64명과 지식재산 관련 민간 전문가 20여 명 등이 참여했다.

이번 창립총회는 강창희 前 국회의장의 축사에 이어 이광형 KAIST 교수의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추진계획 발표', 윤종용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의 '특허의 국제적 동향', 한상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특허허브 국가의 방향 및 특허법 개정안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광형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5대 특허 강국이지만 법 · 제도 · 인력양등 특허분야 전문성은 매우 취약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국가로 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혜영 공동대표는 "특허허브국가 추진은 변호사 비용만 연간 2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특허소송 시장을 우리나라로 흡수하고, 관광 · 식품 산업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는 창조경제를 위한 블루오션이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일정으로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먼저 특허소송 관할 집중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허 관련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올 연말까지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특허청과 함께 특허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특허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SF